



중·일 화폐협정 체결, 위안화 위상 부상 전망

왕양비 연구원

■ 지난 26일 중국과 일본정부 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상호간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화폐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동 협정은 양국 무역거래 시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거래, 일본의 중국 국채매입, 일본 정부기구와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함.

- 현재 중·일 무역 거래액 중 60%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데,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거래를 촉진하는 동 협정은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위안화의 사용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임.
-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에 해당하는 일본이 사상 최초로 중국 국채를 구입하겠다는 결정은 금번 화폐협정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이나, 매입 규모는 100억 달러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.
- 또한, 일본정부 산하 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(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)이 중국 대륙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정부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최초의 외국정부가 됨.
- 이외에도 12월부터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획득한 위안화로 중국 내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허용된 가운데, 중·일 화폐협정은 일본기업이 도쿄와 중국 이외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함.
- 동 협정을 통해 중·일 양국 정부는 위안화-엔화의 직접거래 시장을 공동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사도 밝힘.

■ 이러한 화폐협정은 중국과 일본 간의 금융관계 강화뿐만 아니라, 일본의 경제성장과 위안화의 국제위상 부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.

- 일본 재무성 관원은 동 화폐협정이 중·일 양국 간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, 일본이 아시아,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효과를 잘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.

- 일본 외환보유고의 1%에 불과한 100억 달러 이하의 중국 국채매입은 우선 일본의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, 미국 및 유럽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안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다는 의미이므로 위안화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.
 - 금번 중·일 화폐협정은 이행시기와 목표 규모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언급이 없어 실질적 효과보다는 양국의 태도 표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, 양국의 관련 분야 협력 의사만으로도 위안화의 국제화 및 위상 부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.
 - 일본 재무성 관원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경우 위안화-엔화 직접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에도 중국정부의 처벌을 우려해 동 직접거래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양국 정부의 직접거래 시장 공동 구축에 대한 입장 표명만으로 동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임.
 - 또한, 일본정부가 금리가 더 낮은 홍콩보다 중국 본토 내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위안화 사용 촉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.
- 일본 재무성은 금번 중·일 화폐협정에 따라 위안화-엔화의 직접거래 등으로 미국계 은행들의 이익이 축소될 수 있음에도 동 협정이 G20회의의 목표인 위안화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이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함.

(신량재경 12/26, 화신, WSJ, 12/27 등)